

## 건축여행

광주 최초로 서양 근대문물 받아들인 곳... 마을 전체가 광주 역사 건축박물관이네

옛 것으로 꾸며진 정감 가는 골목길, 곳곳엔 백년 가옥들도 일제강점기 시절 선교사들의 다난한 역사 깃든 교회·병원·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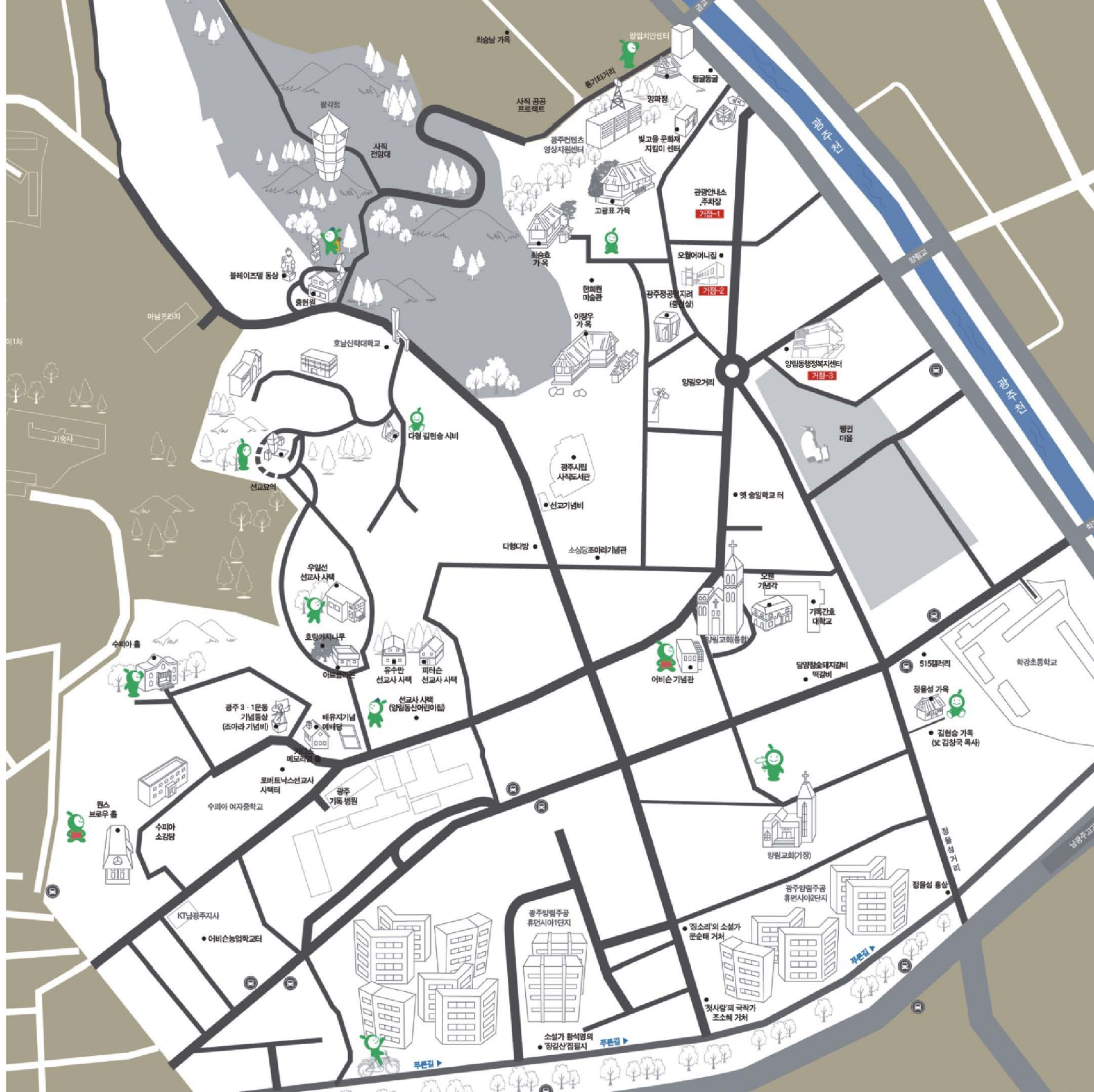
2017년부터 광주시와 남구,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추진했던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올 6월 마침내 마무리됐다. '펭귄마을'로 알려진 양림동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마을로 무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가옥을 비롯해 서양 근대건축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버려진 생활용품들로 주민들이 꾸민 골목과 텃밭들의 풍경이 더해지면서 몇 년 전부터 펭귄마을은 광주의 뉴트로 관광지로 입소문을 탔다.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펭귄마을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마을의 문화적 주민·관광객과의 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문화공원 부지에 공예거리를 마련하고 총괄건축가의 지휘 아래 일부 보안을 거쳐서 골목길을 잇고 여러 문화적 장치들을 마련했다.

발 가는 대로 동네를 구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역사 혹은 건축물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건축테마투어 '건축가와 함께하는 양림건축여행'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건축사와 건축학과 교수 등이 관광객과 함께 직접 펭귄마을과 양림동을 돌면서 건축물들에 깃든 역사와 구조 등을 쉽게 설명해준다. 양림동의 건축물들은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사연이 깊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면에서는 인상적인 건축물 몇 곳을 소개한다.

옛 것도 있고 텃밭도 있네, 그 골목엔



펭귄마을은 양림동 양림커뮤니티센터 남쪽에 마련된 '공예특화거리'를 포함한 인근 주변을 이른다. 이곳에는 지금의 펭귄마을을 있게 한 정크아트 예술가 김동근 촌장이 머무는 '펭귄마을 촌장실'을 비롯해 은반지, 도자기, 나무도마 등을 다루는 공예가게들이 있다. 근처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광주 MBC 진행자들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다. 펭귄마을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은 골목이다. 한때 공동화 현상과 화재 등으로 폐허가 되었던 마을과 이를 극복하려고 한 김 촌장과 주민들의 흔적이 간직돼 있다. 주민들은 버려진 생활용품들로 골목을 치장했고, 곳곳에는 텃밭들을 가꿨다. 골목은 처마 아래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물터로 데려다 주기도 한다. 중장년들에게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새록을 선사하는 풍경이다.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백년 가옥들**



시 지정 민속문화재 제1호 이장우 가옥.

독립운동에 앞장선 도시에 걸맞게 양림동에서도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전통 가옥들을 볼 수 있다. 그중에는 독립운동가 최상현의 집(현 최승효 가옥)도 있다. 그의 부친이자 근대 민족 교육기관 흥학관을 지은 최명구가 1920년대에 만들었다. 정면 8칸, 측면 4칸,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가옥인데, 전통가옥이 개화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흔적이 묻어 있다.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2호로 지정돼 있다. 위치: 남구 양촌길 29-4.

1899년에 지어진 121년 역사가 깃든 집도 있다. 1899년에 정낙교가 건축한 현 이장우 가옥(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호)이 그것이다.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조선시대 상류 가옥 양식을 따르고 있다. 위치: 남구 양촌길 21.

**선교사 영향 받은 근대식 양림교회·기독교병원·학교**

양림교회는 1904년 배유지 목사 사택으로 시작해 1960년 신축을 거쳐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선교사들의 다난한 역사가 깃든 곳이다. 1919년엔 신도들이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회 터를 몰수당해 건물이 헐리기도 했다. 그 탓에 신도들은 1926년까지 오랜 기념각에서 예배를 봤다. 굴곡 많은 역사를 겪었지만 건축물 자체는 근엄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긴 장방형 평면 형식을 갖췄다. 정면으로 보이는 첨탑형 종탑 탓에 수직성이 강조된 것도 특징이다. 위치: 남구 백서로 70번길 2.

기독교병원은 1905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파송한 놀란이 의료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콘크리트 병원이다. 제중원이란 이름으로 개원됐고, 1970년 광주기독교병원으로 개칭돼 현재에 이르렀다. 1960년대에 지어진 인근 병원장 사택과 함께 비교해서 봐도 좋다. 사택은 2층짜리 벽돌건물로, 현재는 리모델링 작업 후 직장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위치: 남구 양림동 37.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등록문화재 제158호)은 개신교 선교지의 근거지인 동시에 광주 지역 최초의 여성 교육학교다. 오래된 회색 벽돌로 된 2층 건축물로, 교육·종교·역사 등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수피아홀에 이어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 홀(등록문화재 제370호)과 수피아 소강당(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7호)이 1927년, 1928년에 차례로 건축됐다. 윈스브로우 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붉은 벽돌 건물이며, 좌우에 복도가 있고 정면 출입문에 포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장로회 서로트(Swinehart) 선교사가 설계에 참여했다. 소강당은 수피아여학교가 학교 인가를 위해 신축된 곳으로, 광주에 남아 있는 체육시설 중 가장 오래됐다. 무엇보다 당시의 건축 양식과 기술을 볼 수 있어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크다. 위치: 남구 백서로 13.



양림교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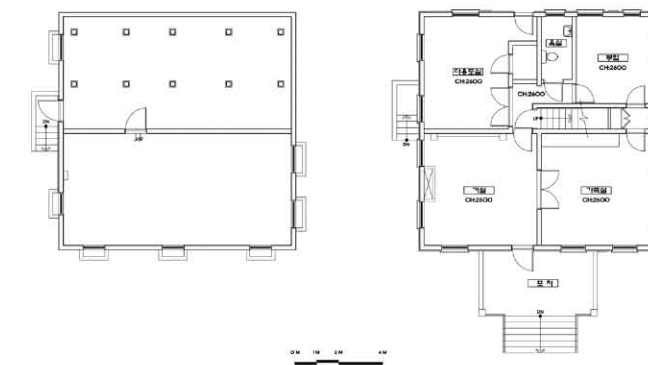
등록문화재 제370호로 지정된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 홀

**광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

양림동산 기슭에 자리한 2층 회색벽돌 건물은 1920년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중병원 2대 원장 우일선 선교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곳(기념물 제15호)이다. 광주에 현존하는 서양식 주택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자 개화기 흔적이 담긴 귀중한 근대 건축 자산이다. 위치: 남구 제중로 47번길 20(호남신학대학 내).



시 지정 기념물 제15호인 우일선 선교사 사택



우일선 선교사 사택 지하 1층 평면도(좌)와 1층 평면도(우)

**투어신청방법**

양림역사문화마을 홈페이지(<http://visityangnim.kr>) 내 '테마투어프로그램·건축투어' 이용

**운영일시**

토요일 오후 2시

**유의사항**

일주일 전, 10인 이상만 신청 가능  
일정 협의 후 별도 투어 진행 가능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01-46번지

**교통**

지하철 : 1호선 남광주역 3번 출구  
버스 : 금남55(양림교), 순환1, 진월17, 봉선27, 금남59(양림휴먼시아2차)  
승용차 : 대남대로 양림휴먼시아2단지 진입 후, 천변좌로 양림파출소 앞 진입

**주차**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안내소 주차장

**문의**

양림역사문화마을 홈페이지(<http://visityangnim.kr>)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협회(담당자 박중호 건축사)

글 이유리 기자 · 사진 장영호 기자

자료 제공 = 박중호 건축사